

II. 한일교류학습의 디자인

1. 필요한 단계

교류학습을 어떻게 연간의 코스, 커리큘럼에 엮어 넣는가는 교육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각각의 교육현장에서 손수 만든 수업디자인을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수업 디자인을 하기 위에 필요한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천 전에 결정해야만 하는 것=교류학습계획>>

□ 교류학습의 상대학교

자매학교와의 교류학습은 가능한가, 그 외의 학교도 생각할 수 있는가.

교류상대학교를 찾는 방법 (1)교류상대를 소개해 주는 기관에 문의한다.

(2)인터넷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한다.

(3)교사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여 직접 교섭한다.

□ 교류학습의 실라버스

어떠한 실라버스(학습항목의 일람)에 기초하여 실시할 것인가.

□ 교류학습의 커리큘럼

년간 커리큘럼에서, 언제, 어느정도 시간을 교류학습에 충당할 것인가.

□ 교류학습의 방법

대면형인가, 비대면형인가. 양쪽을 합쳐서 실시가능한가

□ 교류학습의 평가 반성의 방법

누가 어떻게 교류학습을 반성하고 평가할 것인가.

교류학습 계획의 예

담당수업: 한국어

수강생: 고등학교 3학년생(초급 학습자) 6명

학습시간: 25시간(8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

□교류학습의 상대학교

서울 일본어 교육연구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류상대학교를 찾았다.

□교류학습의 실러버스

교류학습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의 일본어교육의 기준실러버스인 「교육과정」, 일본의 한국어교육의 지도의 표준이 되는 「학습의 표준」을 참고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접점으로서 발견된 것은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문화이해」, 「학습자지향 학습자참가형의 활동」이었다. 이것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화제와 그것에 관해 정보나 기분을 서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중시한 토픽 베이스 과제 실러버스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의 주제(표 1 참조)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 전달하는 자료작성과 의견 교환을 과제로 하고, 그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언어의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류학습의 커리큘럼

4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에 테마를 기초로 하여, 월 1회 자료를 교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자료 교환 이외에 편지 교환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정기시험이나 장기휴가 시기는 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했다.

□교류학습의 방법

비대면형의 교류학습을 기본으로 했다. 교류학습을 행할 때에 출석부 순으로 학생을 매칭하고, 파트너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파트너에 대해 모어와 학습언어를 사용하여 주제별 자료를 작성한 후, 교사가 회수해서, 메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수업 전후에는 교사간에 메일 등을 통해 수업보고를 하고, 정보 공유화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교류학습의 평가 반성의 방법

전기(1학기), 후기(2학기)의 종료시에 교사간에 회의를 하고, 교류학습의 성과나 과제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 학생에게 자유기술 양케이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으로 했다.

표 1. 교류학습 계획의 예 (2008 년도)

교류 기간	2008 년 4 월~ 2009 년 1 월 (한국측 20 시간 방과후수업, 일본측 25 시간 수업중에 실시)	
최종 목표	교류활동을 통해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발견하고, 연구계획을 세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고찰을 정리하여 레포트로 만든다.	
교류학습활동예정	4 월 5 월 6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토픽 1 「자기소개」 자기소개카드, 명함, 파워포인트 자료의 교환 토픽 2 「음식」 좋아하는 음식점의 기본메뉴 소개 자료 교환 토픽 3 「학교생활 1」 가방 안에 있는 것 소개 자료 교환 토픽 4 「여름방학의 생활」 여름방학의 생활보고자료의 교환 토픽 5 「학교생활 2」 학교소개 비디오 편지 교환 토픽 6 「장래의 꿈」 장래의 꿈 소개 자료 교환 토픽 7 「자유연구」 교류를 통해 흥미를 가진 주제에 관해 앙케이트 조사 (교류학교의 상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기연구」 앙케이트 조사 결과와 고찰의 발표, 레포트 제출

2. 교류학습을 행하는 클래스 편성의 유형

한국 학교에서는 하나의 학교에 일본어 학급이 복수로 개설되어져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하나의 학교에 한국어 학급은 하나의 학급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교류학습을 행하는 학급은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 1

<일본측>

<한국측>

한국어 학급(정규 수업) - 일본어 학급 (과외수업 예: 방과후학교, 클럽 활동)

장점) 파트너를 결정해서 교류할 수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수업내용이 가능하다.

단점) 한국에서는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생밖에 교류학습에 관계할 수 없다.

★유형 2

<일본측>

<한국측>

한국어 학급 (정규 수업) - 일본어 학급 (정규 수업) A 조

장점) 파트너를 정해서 교류를 할 수 있다.

단점) A 조 이외의 학생이 관계될 수 없다.

*유형 3

<일본측>

<한국측>

한국어 학급 (정규 수업) - 일본어 학급 (정규 수업) A 조, B 조, C 조 등 매월 조를 바꾼다.

장점) 한국에서도 모든 조의 학생이 교류학습에 관여할 수 있다.

일본 학생은 상대학교의 학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교류할 수 있다.

단점) 일본측의 학생수에 반해 한국측의 학생수가 많아, 파트너를 정해서 일정기간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사람수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어 학급의 학생을 A, B, C 와 같이 한국의 일본어 학급 수로 그룹을 나누고, 그룹과 학급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어 학급의 학생 A - 일본어 학급 A 조

한국어 학급의 학생 B - 일본어 학급 B 조

한국어 학급의 학생 C - 일본어 학급 C 조

3.교류학습에서 가능한 교실활동의 예

교류학습의 활동 유형을 <문화체험><정보교환><협동작업> 이라고 하는 목적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할 활동 유형은 교류학습을 단발로 행할 때 (예를 들어 1년에 1회 교류활동이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류체험》

●함께 게임을 한다

●대면형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

학생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뽑아서, 제스처 등으로 힌트를 주고, 같은 팀의 동료에게 무엇인가를 알아맞추게 하는 게임. 팀 대상으로 행한다.

- ①학생은 팀으로 나눈다.
 - ②각 팀에서 단어를 맞추기 위한 힌트를 주는 사람과 답을 맞추는 사람으로 나눈다.
 - ③미리 준비한 「단어」 카드를 맞추는 사람의 등 뒤에서 보여주고, 힌트를 주는 사람이 제스처 등으로 힌트를 보여준 후, 그것을 듣고 「단어」를 알아맞힌다.
- 알아맞히는 말은 일본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미 공부한 말이다.



뭐지?

알아맞히는 말은 일본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미 공부한 말이다.
예) 컴퓨터, 가방, 교실 등

문제(알아맞힐 단어)는 이쪽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음...



(사진) 2009년 10월 서울시 경북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p>무엇이든지 랭킹 퀴즈</p> <p>학급내에서 「받고싶은 선물」이나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등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순위로 정리하고, 상대의 학생에게 알아맞히게 하는 게임.</p> <p>①학급내에서 미리 테마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놓는다. ②도화지에 순위를 적는다. (1 위, 2 위 등 맞추게 하고 싶은 결과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해 놓는다.) ③교류학습 시간에 결과를 맞추는 퀴즈 대회를 한다. 정답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간단히 보충한다.</p> <p>*한국 경기도에 있는 덕소고등학교와 미야기학원고등학교 사이에 스카이프를 사용하여 웹 카메라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p>
--	---



●선물교환을 하다

<p>대면형</p>	<p>학교방문을 했을 때 등에 파트너 학생과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p> <p>①상대 학교의 학생에 주고싶은 선물을 준비한다.(열쇠고리나 핸드폰걸이 등) ②선물을 건넬 때나 받았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교실내에서 롤플레이 등을 하여 연습을 해둔다. 예) 이것, 한국에서 가져 온 선물입니다. 한국 김입니다. 여기요. 받으세요(선물을 건넬 때) 정말 고마요. 맛있겠다! (선물을 받았을 때) ③ 교류장면에서 실제로 선물을 교환한다.</p>
<p>비대면형</p>	<p>교류의 상대학교와 과자 등을 서로 선물한다</p> <p>①어떤 과자를 보내면 좋은가 학급내(그룹 별로)에서 의논한다. ②보낼 과자를 1 개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소개문을 작성한다. ③소개문과 과자를 우편으로 보낸다. ④상대학교에서 도착한 과자의 소개문을 읽고, 실제로 먹고나서의 감상을 적어보낸다.</p> <div data-bbox="316 1615 767 1946" data-label="Image"> </div> <p>>>실제예는 이쪽에 Ⅲ. 「2-3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하자」에 링크 (사진) 일본에서 도착한 과자를 먹는 한국 학생들</p>

맛있다!

《정보교환》

●편지나 카드를 보낸다

비대면형	<p>일본어와 한국어의 편지 보내기</p> <p>①편지를 교환할 파트너를 결정한다.</p> <p>②배운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더욱 아직 외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여 쓴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쓴다.</p> <p>③교사가 회수하여 보낸다.</p> <p>④상대방에게서 받은 편지를 사전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읽고, 학급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서로 보고한다.</p> <p>인사카드를 보낸다</p> <p>연하장, 서중문안(한여름문안), 크리스마스 카드 등 계절마다 보내는 인사카드를 교류상대학교에 보낸다.</p> <p>①카드를 보내는 파트너를 결정한다.</p> <p>②배운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인사카드에 인사표현을 쓰고, 자신의 모어로 메시지도 첨부하여 보낸다.</p> <p>③받은 인사 카드로부터 알게 된 것이나 알아차린 것을 학급내에서 서로 보고한다.</p>	 <p>(사진)한국에서 도착한 편지</p>  <p>(사진) 한국 학생으로부터 온 크리스마스 카드</p>
대면형	<p>Show & Tell을 하기</p> <p>①테마에 따라, 상대 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나 사람을 선택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p> <p>②그것에 대한 소개문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한다.</p>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소개한다

- ③학급 내에서 작성한 글을 서로 체크하고, 읽는 연습을 한다.
- ④교류장면에서 (실제로 만나고 웹카메라를 통해) 서로 소개한다.
- ⑤들은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코멘트를 교환한다. (교사가 통역이 되어도 좋다)

>>실제 예는 이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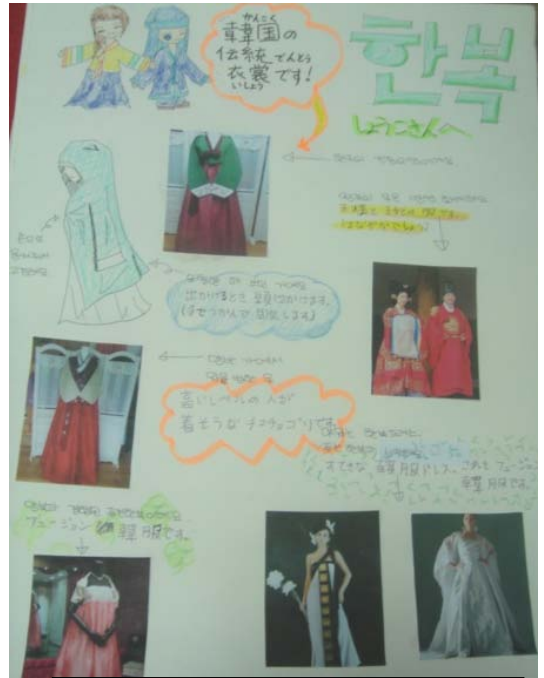
[Ⅲ 「2-3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하자」에 링크](#)

[Ⅲ 「5 일본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일본을 소개하자」에 링크](#)

비대면형

도화지에 사진을 붙이고 코멘트를 붙여 소개한다

- ①테마에 따라 상대의 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나 사람을 선택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
- ②소개할 물건이나 사람의 사진을 선택하고, 그것에 관한 코멘트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한다.
- ③학급 내에서 작성한 글을 서로 체크한다.
- ④도화지에 소개한 물건이나 사람의 사진을 붙이고, 코멘트를 첨부하여 보낸다.
- ⑤같은 형태의 자료가 상대학교로부터 도착하면, 자신들의 내용과 비교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해 보고한다.



(사진) 한국 학생에게서 받은 자료
주제: 가게 소개

>>실제 예는 이쪽

[Ⅲ 「2-1 하루의 식생활을 소개하자」에 링크](#)

[Ⅲ 「2-2 오리지널의 메뉴를 만들자」에 링크](#)

[Ⅲ 「3 가방 안을 소개하자」에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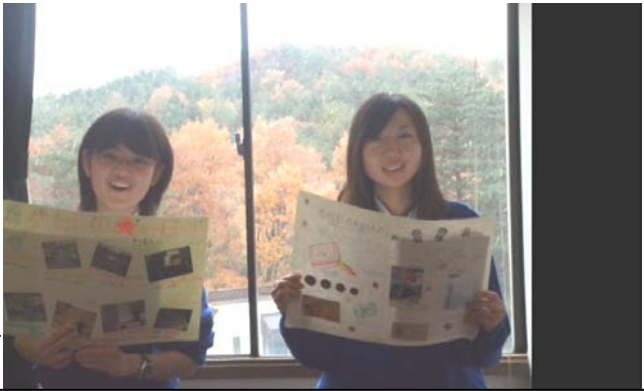
[Ⅲ 「4 가게를 소개하자」에 링크](#)

[Ⅲ 「6 여름방학의 생활을 소개하자」에 링크](#)

[Ⅲ 「8 학교행사를 소개하자」에 링크](#)

[Ⅲ 「10 장래 꿈을 말하자」에 링크](#)


과워포인트 자료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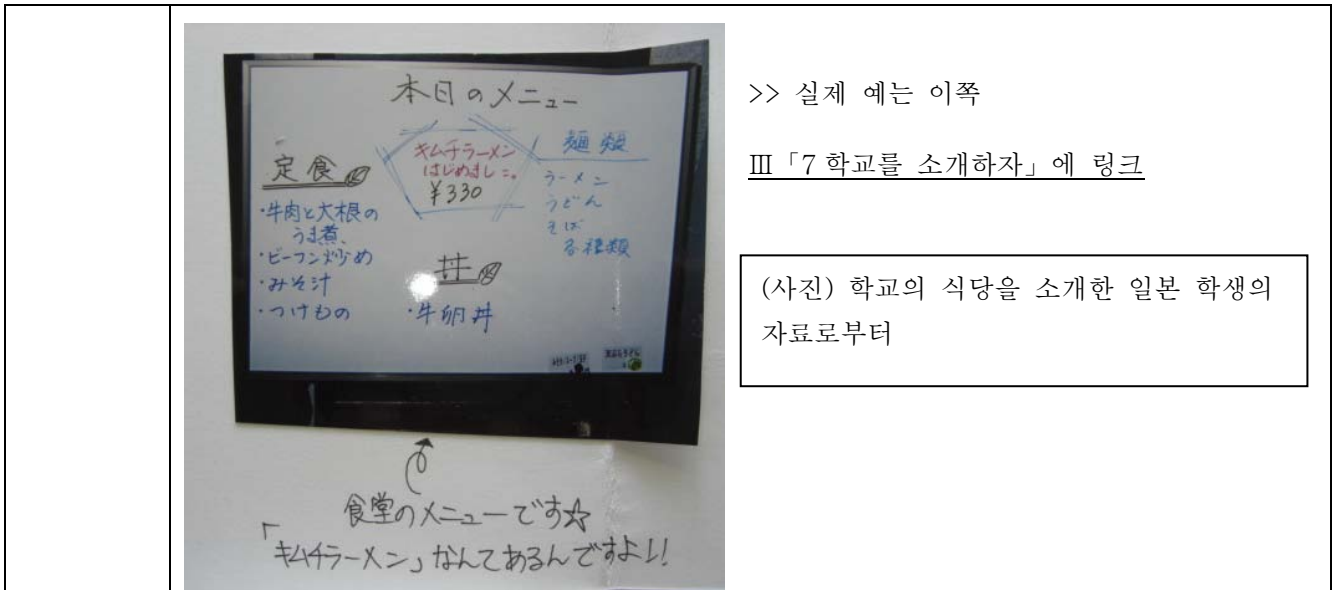
	<p>① 테마에 따라서 대의 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나 사람을 선택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p> <p>② 소개할 물건이나 사람의 사진을 선택하고, 그것에 관한 코멘트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한다.’</p> <p>③ 파워포인트에 사진과 코멘트를 삽입한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코멘트를 읽은 음성을 녹화하고, 음성 파일도 삽입한다.</p> <p>④ 메일을 첨부하는 형태로 상대의 학교에 송신한다.</p> <p>⑤ 같은 자료가 상대학교로 부터 도착하면, 자신들의 내용과 비교하고, 알게된 것에 대해 보고한다.</p> <p>⑥ 자료의 감상, 질문을 상대 학생에게 보낸다.</p> <p>>> 실제 예는 이쪽 <u>Ⅲ 「1-2 자기소개 파워포인트를 보내자」에 링크</u></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right: 20px;"> <p>자료 고마워요.</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width: fit-content;"> <p>(사진) 받은 자료에 대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일본의 학생들</p> </div>
--	---

● 인터뷰 한다

<p>대면형</p>	<p>테마에 기초하여 인터뷰를 한다</p> <p>① 인터뷰 할 테마를 결정한다.</p> <p>② 상대의 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학급 내에서 의논하고 리스트를 작성한다.</p> <p>③ 일본어와 한국어로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서 인터뷰 시트를 작성한다.</p> <p>④ 학급 내에서 인터뷰 연습을 하고, 자신의 대답도 준비해 놓는다.</p> <p>⑤ 교류장면(실제로 만나거나, 웹 카메라를 통해) 서로 인터뷰를 하고, 대답을 시트에 메모한다.</p> <p>⑥ 인터뷰 결과를 서로 보고하고, 자신들과 비교하여 알게된 것 등을 이야기한다.</p> <p>>> 실제 예는 이쪽 <u>Ⅲ 「9-1 하루의 생활을 들어보자」에 링크</u></p>
------------	--

●가이드 한다

<p>대면형</p>	<p>학교방문했을 때 학교구내를 안내한다</p> <p>①학교구내에서 안내하고 싶은 장소를 정한다. ②교실 등 학교의 장소 이름이나 「여기는 ~입니다, ~가 있습니다」 등 장소를 안내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구두 연습해 놓는다. ③교류장면에서는 파트너를 결정하고(개인 또는 그룹으로), 학교구내를 걸으면서 안내한다. ④학생들끼리 자신의 학교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p> <div data-bbox="422 689 1225 1153"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일본의 학생에게 학교안내를 하는 한국의 학생들</p> </div>
<p>비대면형</p>	<p>학교안내자료를 만들어서 보낸다</p> <p>①학교구내에서 안내하고 싶은 장소를 정한다. ②교실 등 학교의 장소 이름이나 「여기는 ~입니다, ~가 있습니다」 등 장소를 안내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말하는(쓰는) 연습을 한다. ③자료를 동영상(동영상으로 링크)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를 갖고 학교구내를 돌며 학생들이 리포터가 되어 그 장소를 소개한다. 파워포인트나 도화지를 사용하여 안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안내하고 싶은 장소의 사진을 붙이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코멘트를 써 넣어 상대학교에 보낸다. ④자료를 교환하고, 자신의 학교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서로 발표한다.</p>



●언어를 서로 가르치자

<p>대면형</p>	<p><u>짝이 되어 단어나 표현을 서로 가르치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파트너를 결정한다. ②여러가지 단어를 나타낸 일러스트가 복수로 쓰여져 있는 프린트(교사가 작성)을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③제한시간내에 그 일러스트가 나타내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서로 가르쳐주고 메모한다. ④자신이 더 알고 싶은 단어를 가능한한 많이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의 언어로 어떻게 말하는가를 배워서 메모한다. ⑤제한시간이 되면 얼마큼 많은 말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말 알아맞히기 게임도 할 수 있다)
<p>비대면형</p>	<p><u>자신이 쓴 문장에 대해 단어표를 만들어서 보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테마에 따른 문장을 모어로 쓴다. (예: 나의 꿈) ②문장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 단어표를 작성한다. ③문장에 단어표를 첨부하여 상대 학생에게 보낸다. 자신이 작성한 것은 복사해서 보관한다. ④상대로부터도 같은 자료가 도착하면, 단어표를 참조하면서 자신이 쓴 문장의 내용을 읽는다. <p>>> 실제 예는 이쪽</p> <p>III 「10 장래의 꿈을 말하자」에 링크</p>

●비디오 편지를 작성한다

비대면형	<p>자기소개 비디오를 작성한다</p> <p>①이름, 학교명, 학년, 취미 등에 대해 소개할 문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만든다. 상대방에게 할 질문도 하나 생각해서 일본어와 한국어 문을 만든다.</p> <p>②발음 연습을 한다.</p> <p>③비디오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상대 학교에 보낸다.</p> <p>④일본에서도 같은 비디오 편지가 도착하면, 학습 언어로 말해지고 있는 내용을 듣는 연습을 한다.</p> <p>>> 실제 예는 이쪽 <u>Ⅲ 「1-3 자기소개 비디오 편지를 보내자」에 링크</u></p> <p>노래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디오 편지를 작성한다</p> <p>①최근 유행하고 있는 노래나 계절에 관계된 노래를 준비한다.</p> <p>②그 노래와 관계있는 자료(노래 카드, 노래나 가수에 대한 설명, 자신과의 관계 등)을 그룹별로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한다. 작성한 자료는 학급 내에서 체크한다.</p> <p>③학급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모습을 비디오촬영을 한다. 작성한 자료도 첨부하여 보낸다.</p> <p>④같은 자료가 도착하면 소개받은 노래를 자신들도 불러 본다.</p>
------	---

●양케이트를 한다

비대면형	<p>스스로 테마를 설정하여 양케이트를 만들고 조사를 한다</p> <p>①상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테마를 설정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p> <p>②테마에 기초하여 조사계획서를 모어로 작성한다.</p> <p>③계획서에 기초하여 질문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한다.</p> <p>④질문 문장을 배우고 있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가급적 대답을 집계하기 쉽도록 자기회답란은 줄이고, 선택지를 많이 한다.</p> <p>⑤양케이트 용지를 완성하면 체크를 받아서 상대 학교에 보낸다.</p> <p>⑥같은 양케이트(모어판)를 자신의 학급에서도 실시하여 집계한다.</p> <p>⑦상대 학교의 학생으로부터 회답이 도착하면, 그 결과를 집계하고 모어로 조사 보고회를 실시한다.</p> <p>>> 실제 예는 이쪽 <u>Ⅲ 「11 양케이트 조사를 해서 레포트로 정리하자」에 링크</u></p>
------	---

《협동작업》

● 함께 블로그를 만든다

비대면형	<p>공동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교실활동 성과 등을 공유한다</p> <p>①교류학교와 공동 웹페이지를 교사가 준비한다. ②수업에서 실시한 교실활동의 성과물을 올린다. (예: 식문화소개 등을 실시하면, 그 사진이나 소개문을 학생들이 올린다) ③교류학교의 상대는 그 내용을 보고 코멘트를 써 넣는다. (한국 학생 쪽이 사람수나 학급이 많은 경우, 월마다 자료를 올리는 학급을 정해서, 반드시 한번은 성과물을 올릴수 있도록 한다. 코멘트는 모든 학생이 써 넣도록 한다.)</p>
------	--

● 함께 이벤트(프로젝트) 준비를 한다

대면형	<p>이벤트에 필요한 것을 상의한다</p> <p>①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젝트 (예:합동캠프)에 대해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 좋은지, 서로 각각 준비해 모이는 편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들어두고 싶은 단어 등에 대해서 학급 내에서 상의한다. ②교류장면에서(실제로 만나거나. 웹카메라를 통해) 각각이 생각한 것을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전달하고 서로 질문을 한다. (필요에 따라 교사가 통역한다.) ③상의한 내용을 메모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간다.</p>
비대면형	<p>이벤트 준비에 필요한 것이나 질문을 써서 보낸다</p> <p>①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 좋은지, 서로 갖고 모이는 편이 좋은 것은 무엇인지, 들어 두고 싶은 것 등에 대해 학급 내에서 상의한다. ②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정리되면,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쓰고 팩스 등을 통해 보낸다. (학습단계에 따라 학습언어로 할지, 모어로 할지 정한다) ③상대학교로부터의 회답을 읽고 준비작업에 들어간다.</p>

4. 운영상의 포인트

★교사사이의 연계가 포인트!

사전 협의(학년 크기, 학습단계, 파트너 정하기, 테마 설정, 교류학습의 일시 등)을 정확히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교사 사이의 교류가 잘 되어 있다면, 학생들 사이의 교류는 보다 원활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연간 스케줄을 서로 파악한 위에, 무리 없는 교류학습 계획을!

한국은 3 월부터, 일본은 4 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 관계로, 시험의 시기나 방학 시기가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할까를 학기의 처음에 합의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류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때문에 필요한 어휘나 문법 학습을 집중하여 하는 등 계획성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포인트!

★대면형, 비대면형의 교류학습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동기를 높인다!

비대면형의 교류학습(편지 교환 등)과 대면형의 교류학습(실제로 만나거나, 웹카메라를 통해 말한다)를 조합시켜 실시하면, 학생의 동기유발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볼수 있는 교류를 꼭 1 번은 체험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前田(2002)는 교류를 계속하는 포인트로서 「(1)교류계획을 세운다」 「(2)편한 시스템을 생각한다」 「(3)교과 학습을 교류에 활용한다」 「(4)물건을 보내고 신속하게 대응한다」의 4 가지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2)편한 시스템을 생각한다」가 아닐까요. 前田(2002)는 영어권 학생들과의 교류학습을 예로 들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쓴 영어 문장을 모두 담당 교사가 해석하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통역 보란티어를 의뢰했다, 즉,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사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을 어시스턴트로 오게 해서, 학생들의 교류학습의 서포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고등학생과의 교류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로에게 공부가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활용은 교류학습을 계속하게 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参考文献

前田康裕(2002)「子どもをネットワーカーにする総合的な学習」『共同交流型カリキュラムを創る』明治図書

질문 코너

Q. 이 Web 페이지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수업 중에 행해지는 교류 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정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어려운 것은 아닌지?

A. 각각의 커리큘럼 안에서 교류 학습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까 나름입니다. 1년내내 계속, 교류활동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수업한다면 운영상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일년에 1회, 반년에 1회라도, 학습 성과를 서로 발표하는 등의 교류 학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서로의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과 내용으로 시도해 보고, 보다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문법이나 어휘의 학습 방법은?

A. 본Web 페이지 사례집에서 소개한 내용은, 토픽에 근거한 자료 교환이라는 교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어휘나 표현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매회 토픽과 관련하여 「이것만은」알아두었으면 하는 언어 표현을 준비해, 적어도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한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학생 한사람 한사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사전으로 찾는 것도 매회 수업에서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토픽이 바뀌어도 같은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반복을 통해 그 표현이 정착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이나 어휘 학습은 외국어 학습의 뼈와 살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교류학습 활동과 잘 연계하여 동기 부여함으로써 수업 외에서의 자율적인 학습도 촉진시키고 싶습니다..

Q. 교류 활동의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

A. 각 학교의 스케줄에 맞추어 실시 가능한 빈도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교류 상대 학교로 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주일 이내가 좋겠지요. 팩스나 메일을 사용해 감상을 보내는 것이 최선. 서로 긴 연휴나 시험기간을 파악해, 반응을 빨리 보일 수 있는 간격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싶지요? 학교의 연간 스케줄을 교환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Q. 교사간의 협의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A. 메일이 편리합니다만, 최근에는 Skype 등 무료통신소프트를 이용해 전화로 협의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통화 등도 가능합니다. 학생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간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갖는 것이 교류 학습을 성공시키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학급의 분위기, 학생의 학습 상황, 교류 활동의 구체적인 절차, 학생의 반응과 반성, 평가 등 서로 이야기해야 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학년초, 교류 학습의 전과 후, 학기 말에는 반드시 정보를 교환하며, 더 좋은 교류 학습을 위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